

남한지역 高麗時代 城郭 築城과 年號銘 기와의 聯關性

김 호 준*

1. 머리말
2. 고려시대 기와 연구사 검토
3. 城郭 출토 年號銘 기와의 현황
4. 高麗城郭 축성과 年號銘 기와의 聯關性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는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대내적으로 격심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대외적으로 당·송교체기 변화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등의 북방세력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였다. 고려는 나말려초의 혼란 속에서도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본고는 필자가 2013년도 한국기과학회·한국성곽학회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김호준, 「고려 성곽 출토 기와-남한지역 산성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2013, 한국기과학회·한국성곽학회 2013년도 국제학술회의)

북방세력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축성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란과의 3차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女眞이 국경지역을 넘나들며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자 別武班을 창설하여 그들을 정벌하고 동북면 일대에 9城을 쌓고 이후의 무력도발에 대응하였다. 그 후 세계 최강의 몽골군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며 40여 년간 항전을 지속하였다. 원의 간섭을 물리친 이후에도 고려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전투와 화포 등의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여 북방민족(遼·金·元·紅巾賊), 倭寇의 侵掠을 극복하였다. 그 원동력은 고려가 갖고 있는 군사조직, 방위체제, 군사전력을 아우르는 관방체제가 그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고려시대 성곽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문헌을 위주로 하였고 기에 고고학 조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²⁾ 더욱이 『高麗史』兵志 城堡·鎭戍 등에 기록된 성곽이라 할지라도 성곽의 현황과 변화를 살피기에는 당시의 기록이 소략하고 빠진 것이 많다고 한다.³⁾ 즉, 『高麗史』兵志의 기록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록으로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高麗史』에 기록된 축성기사는 대부분 고려전기에 축성된 북계와 동계의 성곽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성 이북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의 분단현실에 의해서 실제로 조사를

1) 고려시대 성곽연구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에 개최된 한국성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차용걸이 「고려시대 성곽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축성 배경과 대상에 대해 정리 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 성곽은 시·공간적 범위를 왕조의 내부적 통치체제 정비와 관련된 축성, 북방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한 축성, 고려 말 沿海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차용걸, 「고려시대 성곽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2009.11, pp.1~11.)

2)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入保』, 2012,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p.2.

3) 이기백, 「『고려사』병지의 검토」, 『고려병제사연구』, 1996, 일조각.

수행하거나 북한 측 연구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남한 내 성곽이라 할지라도 유적의 성격상 축조된 이후에 끊임없이 보수와 개축을 반복하며 사용되었기에, 고려시대라는 특정 시대의 상황을 밝히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곽 연구는 역사학 속에서 다양한 학문과 연계를 맺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 특히 성곽의 축조 및 활용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편년과 변화의 속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청자 및 기와에 대한 고고학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 유물 중 고려시대 전체에 걸쳐 출토되는 유물은 기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와 가운데 유구의 편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명문기와이며, 그 중에서 연호명과 간지명 기와를 들 수 있다. 고려시대 연호명 기와가 출토되는 유적으로는 대부분 성곽과 사찰을 들 수 있다. 연호는 광종의 독자적인 연호를 제외하고는 보통 중국의 연호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호명 기와는 총 60개(48건) 유적에서 조사되었다고 한다.⁵⁾

고려시대 年號銘 기와는 평기와의 제작방식 등을 비교하여 편년 설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성곽에서 출토된 年號銘 기와는 성곽의 활용문제를 밝혀줄 중요한 금석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남북한의 상황에서 남한지역의 고려성곽⁶⁾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연호명 기와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성곽의 축조 및 활용문제를 전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사찰과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4)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전략과 전술적 측면에서 지리학과 군사학적 접근 방식, 축성과 관련하여 토목학·건축학 등의 기술적 접근방식, 유물의 편년과 변화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접근방식을 들 수 있다.

5)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6) 본고에서 고려성곽은 고려시대에 축조되거나, 활용된 성곽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명문의 해석과 이를 통해 평기와 제작연대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려시대 성곽의 축조 및 활용문제를 파악하는데, 고고학 자료로써 기와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고려시대 기와 연구사 검토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평기와는 이전 통일신라시대와 비교하여 문양의 다양화 및 복합문양의 증가, 측면 와도분할이 1/3~1/5 정도로 약식화, 하단부 내면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특히 외면에 문양과 함께 年號·寺名·人名·地名·제작자와 제작일자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명문이 시문된다고 한다.⁷⁾ 이러한 점은 통일신라의 한정된 고유명사만을 시문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⁸⁾ 이와 더불어 각 지방의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자들도 고려기와의 특성과 출현시기(9~11세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고려 평기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기와 외면에 나타나는 타날 문양과 타날판의 크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⁹⁾

7) 명문 기와는 시문구에 명문이 시문된 것으로 타날(strike)의 개념보다 시문(press)의 개념이 강하다. 명문기와의 분류하기 위해서는 시문형태에 따른 형식분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시문이 이루어지는 방곽을 갖추고 단독문과 결합하는 형식, 명문이 시문구의 ‘중심문양’이 되고 상단 내지 좌우측에 명문을 꾸미는 문양이 보조적으로 포함되는 형식, 명문이 시문되는 명문대를 지니지 않고 문양 내에 명문이 삽입되는 형식, 이외 3단 복합문계의 횡대문양과 같이 상하문양을 구획하는 명문대에 명문이 시문되는 형식, 무문양의 시문구에 명문만이 시문되는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이재명, 「서부경남지역 출토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 검토-사천 본촌리 폐사지 출토 고려시대 평기와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제3집, 2010, pp.10~11.)

8) 김병희,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2001,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p.2.

9) 최태선, 「평와 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1993,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그 후 2000년대에는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학술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고려시대의 다양한 유적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의 출간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반영 하면서 고고학 분석이 충실해졌다.¹⁰⁾ 이러한 1990~2000년대의 연구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기와가 정형화 되는 시점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 명문기와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기와 명문 판독 혹은 유구의 성격과 편년을 판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
- 최정혜, 「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 연구-문양형태를 중심으로-」, 1996,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허미형, 「統一新羅期 平瓦에 대한 研究:二聖山城出土瓦를 中心으로」, 1989,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10) 고재용, 「고려·조선시대 평기와의 변천과정 연구」, 2001,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김병희,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2001,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윤용희, 「南漢江流域 出土 高麗前期 평기와 考察-驪州 元香寺址 출토기와의 分析을 中心으로-」, 2001,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김경범, 「高麗時代 기와의 科學的 分析과 사찰건축의 복원을 위한 研究」, 2002,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2003,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시대 평기와 제작방법의 변천」, 2004,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전남지역 우상문 평기와의 변천양상」, 2004,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최문환, 「과주 해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2005,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웅, 「洪城 石城山城 出土 평기와의 特性 檢討」, 2006,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 윤환성, 「慶州 출토 羅末麗初 寺刹銘 평기와의 변천과정」, 2007, 경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원주지역 고려·조선시대 평기와 연구」, 2008,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호경,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중부지역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2007,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기민, 「慶南地方 高麗기와 成立期의 樣相과 그 特徵」, 『文物研究』 14, 2008, 동아아시아 문물연구소.
- 김지연, 「부산·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2009,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이재명, 「서부경남지역 출토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 검토 -사천 본촌리 폐사지 출토 고려시대 평기와를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논문집』 3, 2010,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 박종진,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2011,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박동호, 「羅末麗初期 강원지방의 평기와 연구」, 2011,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명문과 상관된 기와의 특성과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성격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먼저 김병희는 2001년에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고려시대 연호가 타날된 명문기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 평기와의 특성 및 제작방식을 도출 하였다.¹¹⁾ 그의 연구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걸치는 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기와 편년에 대한 기준과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瓦草’의 판독을 ‘凡草’로 해석하고, ‘官草’의 대비되는 제작 공급처의 해석은 논란이 되고 있다.

차순철은 통일신라~고려시대 초기에 해당되는 총 28개 유적(성곽+사찰+생활유적)에서 출토된 ‘官’銘 기와를 분석한 연구 성과에 의하면, 1. 관청 건물, 2. 관영창고(‘大官’+‘棟’), 3. 화재 대비 辟邪의 의미, 4. ‘大官’銘 기와는 ‘棟’銘 기와가 동반출토되므로 창고 官職, 5.寺의 이름표기, 6. 해당 지역의 지방이름과 결합할 시 官·城·郡의 뜻, 고려초기 지방호족의 정체성¹²⁾, 官과 官草의 명문와가 출토되는 7. ‘官·官草·宦’ 명문와 출토 대형건물지는 지방세력의 居館¹³⁾으로 보고 있다.¹⁴⁾ ‘官’銘 기와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의 명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순철의 연구 이후 고려시대 명문와에 대한 성격 규명과 고찰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 분야는 평기와 특성에 치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부 유적에 한정되어 명문의 해독에 치중하였다.

11) 김병희, 앞의 글, 2001.

12)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 기와에 대한 일고찰」, 『백제와 주변세계』, 2012, 성주탁교수 추모논총, pp.564~565.

13) 도문신, 「清原 雙清里 多重環濠의築造勢力과 易吾加菴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6.

14) 차순철, 「「官」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慶州文化研究』 5, 2002,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최근에 명문기와의 연구는 사찰과 지역 명칭에 대한 해독 문제를 벗어나서 년호명, 간지명, ‘官’銘 기와와 동반한 ‘草’, ‘官草’, ‘京(棕)’, ‘大官’, ‘面’銘 등으로 확대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⁵⁾

구산우는 2011년에 부산광역시 및 경남 창원시 일대의 성곽과 사찰에서 출토된 ‘面’銘 기와를 통해 고려시대 면리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축성과 관련하여 面 단위의 인원동원으로 보는 것 보다는 축성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면적(범위)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과 기와가 배치될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 대한 지적도 있다.¹⁷⁾

홍영의는 2012년에 개성 고려궁성에서 출토된 명문기와에 대한

- 15) 고려시대 명문기와의 특징과 해석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윤용희, 위의 글, 2001.
 차순철, 「「官」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慶州文化研究』5, 2002,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pp.90~130.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29, 2006, 고려사학회, pp.71~98.
 도문선,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의 築造勢力과 易吾加茆村의 存在」, 『한국고대사연구』50, 2008.6.
 김호준, 「고려 성곽 출토 기와-남한지역 산성 출토기와를 중심으로-」, 『성곽과 기와』, 2013.10, 한국기과학회·한국성곽학회 2013년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심광주, 「신라 성곽 출토 문자기와」, 『성곽과 기와』, 2013.10, 한국기과학회·한국성곽학회 2013년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이동주, 「경산 중산동 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문자기와의 분석을 통해서-」, 『고 문화』82, 2013.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41, 2015.
- 16) ‘面’銘에 대한 기와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연구는 구산우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산우에 의하면 기준에는 조선 태종 때부터 面里制가 성립되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성곽의 활용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면리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을 이 시기에 제도화한 것이기에 ‘面’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30, 2011.; 「고려시기 김해의 치소성과 새로운 자료의 소개」, 『역사와 경계』85, 2012.; 「고려시기 春川의 새로운 面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88, 2013.; 「김해 봉황동에서 출토된 고려 치소성의 기와 명문-고려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해석」, 『한국중세사연구』40, 2014.)
- 17) 홍영의, 위의 글, 2015, 주) 88.

유형을 분석하여 생산지와 생산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¹⁸⁾ 그리고 2015년에 남한 내 고려시대 유적 중 2013년까지의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명문기와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명문에 대한 판독내용 분석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명문기와에서 얻을 수 있는 사찰명, 제작연대, 제작자, 건축주체 등을 추적하고자 하였고, 명문기와가 고고학적 자료이지만 전문연구자와 공동으로 명문판독 과정을 진행하자는 견해도 제시하였다.¹⁹⁾

3. 城郭 출토 年號銘 기와의 현황

남한의 고려성곽에서 출토된 연호명 기와는 ‘峻豐四年’(광종 14: 963), ‘乾德三年’(광종 16년:965), ‘太平興國七年·八年’(성종 1·2년: 982·983), ‘大平八年’(현종 19년: 1028)·‘大平十年’(현종 21년: 1030)·‘大平十五’(정종 1년: 1035), ‘正豐二年’(의종 11년: 1157), ‘至正十八年’(공민왕 7년: 1358)으로 6개의 연호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출토된 성곽은 음성 망이산성(峻豐四年, 太平興國七年·八年), 평택 비파산성(乾德三年), 부여 부소산성(大平八年), 진도 용장성(大平十年), 사천 선진리성(大平十五), 청주 청주읍성(大平), 부산 당감동성(大平), 마산 회원현성(正豐二年), 인제 한계산성(至正十八年) 등 9개 성곽이다.²⁰⁾

18) 홍영의,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 『개성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19) 홍영의, 위의 글, 2015.

20) 이외에도 ‘天慶三年’명 기와가 속초 속초리토성과 강릉 굴산사지, 속초 진전사지에 출토되었다. ‘天慶三年’명은 요나라 연호로 예종 8년(1113)에 해당한다. 강원 속초리토성의 연호명 기와는 정식조사가 아닌 인근 주민이 수습한 것으로 출토지에 대한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배제하였다.(예맥 문화재연구원, 『東草 東明洞遺蹟-속초 동명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

이 장에서는 남한지역 고려시대 성곽에서 출토된 年號銘 기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 ‘峻豊’銘 기와 - 음성 망이산성

‘峻豊四年壬戌大介山 / 竹州’銘 기와는 1999년(2차 조사) 서문지에서 출토되었다.²¹⁾ 명문은 장방형 방곽 안에 左書로 된 2줄의 명문이 종으로 배치되었다. 글자의 자경은 3cm이다. 명문의 내용은 고려 광종의 연호(峻豊²²⁾) + 간지²³⁾ + 지명 등이다. 타날판은 폭 6.5×길이 21cm의 장판형이다. 폭 3cm의 내면하단 조정흔적이 있으며 조정된 하단 두께는 0.7cm이다. 분할흔적은 내면에서 배면 쪽으로 1/3 분할하였다. 두께는 1.5~1.8cm이다. 峻豊은 고려 광종의 독자연호로 알려져 있고, 준풍 4년은 광종 14년(963)에 해당된다. 奉業寺址에서 출토된 ‘峻豊’銘 기와와 타날문양으로 보아 동일한 기와로 보인다.

나. ‘乾德三年’銘 기와 - 평택 비파산성

‘乾德三年’銘 기와는 1998년 경기도박물관이 진행한 평택지역

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14.) 또한 양양읍성에서도 ‘大德三年’명으로 추정되는 ‘癸巳’기와와 진전사지에서 출토된 ‘大德三年’명 기와와 명문 양상이 동일한 기와가 출토되었다.(한백문화재연구원, 『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13.) ‘大德三年’은 충렬왕 3년(1299)에 사용되었던 원의 연호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양읍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충렬왕 3년의 축성과 관련된 부분은 간과 한 부분이 있다.(권민석, 「양양읍성 연구」, 2014,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따라서 필자는 고려 충렬왕 시기 양양읍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강원지역의 축성현황을 차후에 논고로 밝히고자 한다.

2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9.

22) 고려 광종 연간에 ‘峻豊’銘의 연호가 기록된 유물로는 청주 용두사지철당간 기(峻豊 3年: 963년)와 일본 照蓮寺에 소장되어 있는 영암 西院鐘(峻豊 4年: 964년)이 있다. 그리고 원주 居頓寺址 圓空國師勝妙塔碑에서 ‘峻豊’ 2년 기사가 확인된다.

23) 준풍 4년에 해당하는 간지는 癸亥이다. 壬戌은 준풍 3년(963)에 해당된다.

관방유적 정밀지표조사에서 수습되었다.²⁴⁾ 기와는 폭 2.7×길이 8.3cm의 방곽 내에 명문이 배치되었고, 그 주변으로는 복합문계열(사격자기하문+격자문+어골문) 문양이 타날되었다. 명문은 右書로 글자의 크기는 가로 1.3~2×세로 1~1.7cm이다. 명문기와는 회색계통이며 수키와에서는 눈에흔만 분리흔적으로 남아 있다. 와도흔과 윤철흔은 없다. 두께는 수키와는 1.5cm, 암키와는 2~2.7cm이다.

乾德은 중국 宋의 연호로 고려 光宗 16年(965)에 해당된다. 奉業寺址(‘乾德五年’)와 부여 무량사(‘乾德九年辛未四月十’)에서 ‘乾德’명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비파산성과 봉업사지 출토 수키와에서 내면에 분리흔적으로 눈에흔 만이 남아있고, 와도로 분할하지 않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太平興國’銘 기와 - 음성 망이산성

‘太平興國七年…/ 竹州凡草近…’銘 기와는 1차 조사에서, ‘興國八’銘기와는 1~2차 조사에서 출토되었다.²⁵⁾ 左書로 2줄의 명문이 종으로 배치하였다. 분할흔은 내면에서 배면 쪽으로 1/3가량 남아있고, 회색계통의 연질기과이다. 두께 1.8~2cm이다. ‘太平興國’은 송 태종의 연호(976년~984년)로 7년은 고려 성종 1년(982)에 해당된다. 이러한 명문기와는 명문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안성 奉業寺址와 영동 계산리유적에서 출토된 ‘興國七年’銘 기와와 동일한 기와로 보인다. 또한 ‘興國八年’명은 성종 2년(983)에 해당되기에 奉業寺址에서 출토된 ‘興國八年’銘 기와와 제작 방식과 명문 내용에서 동일한 기와로 볼 수 있다.

24) 京畿道博物館, 『平澤의 關防遺蹟(Ⅰ)』, 1999.

25)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 조사보고서(1)』, 1996.

_____,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9.

라. ‘大平十年’ 銘(진도 용장성)·‘大平十五年’ 銘(사천 선진리성) 기와

‘大平十年庚午四月..金沙寺..造印’銘 기와는 용장성 내부의 궁성터 외벽의 외측토루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해 조성된 와적층에서 출토되었다.²⁶⁾ 이 명문기와는 고려 대몽항쟁기 삼별초에 의해 궁성터를 조성되는 과정에서 폐기된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기와가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어골문에 명문을 2차 타날한 것으로 보인다.

‘大平十五〇連’銘 기와는 사천 선진리성 토성 E지점 외벽 1차 기단외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²⁷⁾ 회청색 경질기와로 일부편만 잔존한다. 두께는 2.4cm이다. 내면에는 사철흔, 연철흔이 확인된다. 배면에는 구획복합문으로 상하 대칭 사격자문 + 명문이 확인된다. ‘大平’銘은 부산 당감동성지로 알려진 동평현성지에서 출토되었다.²⁸⁾ 명문 아래에 어골문이 타날되어 명문은 2차 타날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청주 서문동 성골 유적에서도 회갈색 경질소성의 암키와 편에서 ‘大平’銘이 확인되었다.²⁹⁾ 어골문에 명문을 2차 타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여 부소산성에서는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상하대칭 어골문 중앙에 ‘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 명문이 시문된 기와가 출토되었다.³⁰⁾ ‘大平’은 ‘太平’으로 본다면 중국 遼 聖宗 1021년~1031년 간의 연호라 할 수 있다.³¹⁾ 부소산성

26) 김세중, 「진도 용장성 왕궁지 6차 발굴조사」, 2015, 한국성곽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27)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천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지구내 泗川 船津里城』, 2008.

28)釜山廣域市立博物館, 『堂甘洞城址 I』, 1996.

29) 중원문화재연구원, 『淸州 西門洞 성안遺蹟』, 2008.

3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보고 II』, 1997.

31) 부산 동평현성지와 청주 서문동에서의 ‘大平’명 기와는 구산우와 홍영의(홍영의, 위의 글, 2015, 주) 97)의 지적처럼 앞과 뒤에 글자가 없어 연호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와 명문과 같이 타날된 어골문 문양, 청자편, 출토된 유적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大平8년’銘 기와는 고려 현종 19년(1028), 진도 용장성의 ‘大平十年’은 현종 21년(1030), 선진리성의 ‘대평15년’은 靖宗 1년(1035)으로 볼 수 있다.

마. ‘正豐二年’銘 기와 - 마산 회원현성

‘正豐二年丁丑 寺○一品八月造’銘 기와는 조사지역 전역에서 출토되었고, 전체 기와 수량의 12%을 가량 차지한다.³²⁾ 회황색의 경질기와이다. 두께는 2.1~2.7cm 정도이다. 배면에는 명문+호상집선문+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분할흔은 내면에서 배면 쪽으로 1/5가량 분할하였으며 분할 돌대흔이 확인된다. 내면 하단부에 폭 7.5cm 가량 조정 후 물손질하였다. 正豐二年丁丑은 본래 正隆二年으로 金의 海陵王(1149~1161) 재위기간에 해당되나, 高麗 太祖의 부친인 王隆의 諱를 피하여 豐자로 대체한 것이다.³³⁾ 正豐二年丁丑은 高麗 毅宗 十一年 서기 1157년에 해당한다.

바. ‘至正十八年’銘 기와 - 인제 한계산성

‘至正十八年三月十三日’銘 기와는 한계산성의 하성에서 수습되었다.³⁴⁾ 회청색 또는 흑회색을 띤다. 배면은 사선문과 종선문, 횡집선문, 격자문이 혼재되며 각 구획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분할흔은 내면에서 배면 쪽으로 1/5가량 분할하였다. 원나라 順帝(1341년~1368년)의 연호로 지정18년은 공민왕 7년(1358)에 해당한다.³⁵⁾

32) 경남발전연구원, 『馬山 會原縣城』, 2008.

33) 『高麗史』 卷18 의종 10年 10月. “是月金改貞元四年爲正隆元年避世祖諱以豐字代隆字行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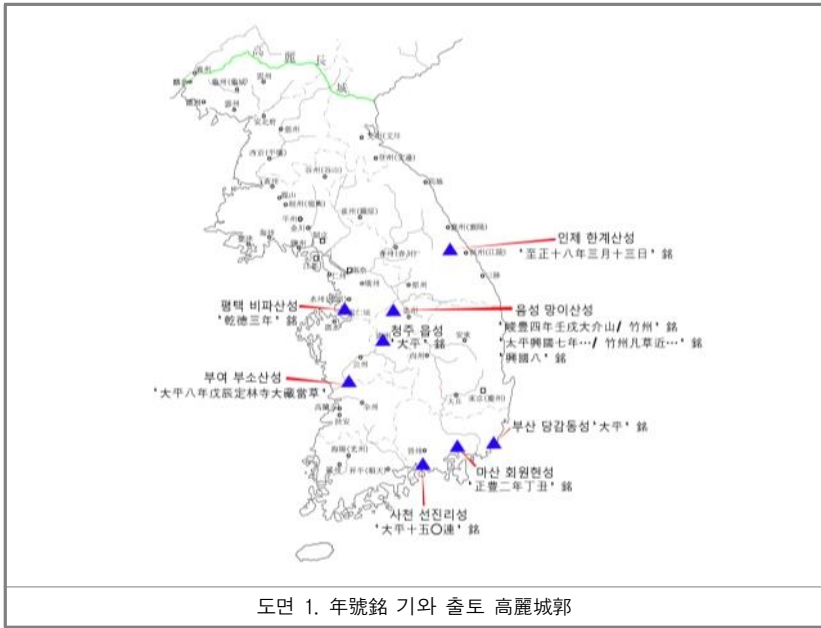
34)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인제 한계산성 학술조사 보고서』, 2012.

35) 공민왕은 1356년에 원의 至正 年號를 중지하였다.(『高麗史』 卷39 공민왕

〈표 1〉 남한지역 고려성

<p>음성 망이산성 '峻豐四年壬戌大介山/ 竹州'銘</p>		<p>음성 망이산성 '太平興國七年.../ 竹州凡草近...'銘, '興國八'銘</p>	
<p>평택 비파산성 '乾德三年'銘</p>	<p>안성 봉업사지 '乾德五年'銘</p>	<p>부여 부소산성 '太平八年戊辰定林寺 大藏當草'銘</p>	<p>사천 선진리성 '太平十五〇連'銘</p>
<p>진도 용장성 '太平十年庚午四月..金沙寺..造印'銘</p>			
<p>청주 청주읍성 '太平'銘</p>	<p>부산 당감동성(동평 현성) '太平'銘</p>	<p>마산 회원현성 '正豐二年丁丑'銘</p>	<p>인제 한계산성 '至正十八年三月十三 日'銘</p>

5年 6月 乙亥. “乙亥停至正年號.”)



4. 高麗城郭 축성과 年號銘 기와의 聯關性

고려시대 연호명 기와는 최근의 연구성과에서 60개 유적에서, 48개의 연호명 사례가 조사되었다고 한다.³⁶⁾ 최근 진도 용장성에서도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성곽과 사찰 혹은 관청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중 성곽에서 연호명 기와가 출토되는 점은 그 성곽의 축성년대 혹은 증개축 등의 활용된 시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 정부의 주도 하에 성곽 및 그 일대에 대한 경영이 이뤄졌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36) 홍영의, 앞의 글, 2015.

먼저 연호명 기와 중 편년이 가장 빠른 고려 광종 대의 연호인 ‘峻豐四年’명 기와를 통해 고려 초기의 축성 상황을 살펴보겠다.

가. 광종 대의 축성상황

고려는 태조 때부터 평양 그 북쪽 지역인 청천강 이남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거점지역인 鎭을 설치하고, 성곽 등의 군사요새를 구축하였다.³⁷⁾ 고려 태조부터 광종대의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를 시간적 추이로 5단계로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태조는 먼저 평양을 복구하였고, 평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군사 거점성을 축성하여 북방의 적을 방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³⁸⁾ 이와 더불어 개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종 때에 이르러서는 광종 3년(952)에 安朔鎭(延州) 축성 이후 광종 11년(960) 이후 濕忽(嘉州), 松城(?)에 축성을 제외하곤 광종 18년(967)까지 십여 년간 북방에 대한 축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종대의 북방 개척은 광종대 후반이 되어서야 다시 활발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광종 대 연호명 기와가 출토된 망이산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망이산성은 해발 472.5m의 망이산에 위치하고 있다. 망이산(일명 마이산)은 중부지방을 가로지르는 차령산맥의 중간지점으로 서쪽 안성시 일대, 동쪽 이천·음성·충주 방향, 남쪽 진천 방향으로 사방의 시야 확보가 매우 좋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적 요건으로

37) 김호준, 앞의 글, 2012, pp.14~30.

38) 윤경진은 발해 멸망(태조 9년: 926)으로 고려 태조가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에 거란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서경 인근 동서 방면에 대한 축성이 있던 것으로 보았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鎭 설치: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鎭 연혁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 pp.251~288.)

정상부의 망이산 봉수대는 직봉인 음성 가섭산과 간봉인 진천 소을산(봉화산)의 봉수를 받아 죽산 건지산을 거쳐 한양에 이르도록 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망이산성은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는 정상부 산마루(해발 472.5m)를 중심으로 축조된 테피식 형태의 토성(내성: 현존길이 250m)과 정상부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다 다시 솟은 2개의 봉우리(해발 458m와 해발 452m)의 8~9부 능선부, 그리고 북동쪽 방향으로 형성된 주계곡부를 연결하여 축조된 포곡식 형태의 석축산성(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축산성의 규모는 전체 2,080m이며, 평면모습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장축으로 하는 불규칙 타원형꼴이다. 문지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내성 추정 문지 1개소, 외성 문지 2개소, 추정문지 3~4개소가 확인되었다. 외성의 치성은 3개소와 추정 3개소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이산성 외성의 석축성벽은 기초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기초석보다 작은 면석을 들여쌓기를 하여 ‘品’형 형태로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기초석과 1단 면석 외부에는 토사를 다져서 보강하였다. 사용된 면석은 전면을 치석하고, 뒷부분을 얇게 치석하였다. 이러한 축조방식은 천리장성의 2단계 산악지대의 석축성벽 축성방식과 4단계 북쪽 성곽의 석축성벽의 축성방식에서 보이는 기저부에는 자갈과 진흙으로 다진 후에 기초석을 설치, 기초석 위에는 기초석보다 작은 석재를 올려놓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³⁹⁾.

망이산성은 치성과 문지의 배치와 현황, 석축성벽의 축조방식이 고려 전기 북방개척 당시 축조했던 鎭城의 현황과 매우 닮아 있는 점은 행정적인 기능보다 군사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고려 전기에 활용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이산성은 광종이 가장 경계했던

39) 최희립, 「천리장성의 축성상 특징과 그 군사적 거점인 진성에 대하여(2)」, 『역사과학』 1986-3, 198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세력 중 하나인 진천과 청주의 혜종과 정종의 외척세력들(혜종의 장인은 진천 임희와 청주 김공률, 경주 연예이며, 김공률은 정종의 장인)을 경계하고, 고려 태조의 진찰인 봉업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⁰⁾

평택 琵琶山城은 평택시 안중면 용성 3리의 설창마을과 덕우 1리 원덕마을의 경계에 있는 비파산(해발 102m)에 위치한다. 산성의 입지는 동쪽으로 차령산맥과 평택·오산시, 남쪽으로는 아산·천안시, 서쪽으로 당진·서해안, 북쪽으로 화성군이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산성은 비파산의 북쪽 정상부와 남동쪽 하단부의 용성리 뒷골을 포함하고 있고, 포곡식의 토축으로 된 성곽이다. 북쪽으로는 고개를 가운데 두고 자미산성과 마주보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용성리성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1,622m로 門址 5개소, 雉城 4개소, 建物址 14개소, 飲料遺構 5개소 등의 시설물이 남아있다.

평택지역은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초기에 이르러 건물지 및 주거 유적, 관방시설 등의 고고학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안성천·아산만일대 평야지대의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인구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평택 및 서해안 일대에 대한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초기에 주변 車城縣의 읍치로 축조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광종은 집권 초기부터 태조와 정종을 이어 개경 및 서경 주위를 방어하기 위한 축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종은 광종 3년(952)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북방 축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40) 정성권,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韓國人物史研究』 제19호, 2013, pp.223~266.

41) 양정석, 「고고유적을 통해 본 신라말 고려초의 평택지역」, 『신라말 고려초 평택지역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15.4, 신라사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집, pp.31~41.

그런데 광종이 북방 개척을 위한 축성을 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반도 중부지방에 위치한 망이산성과 비파산성에서 그의 독자적인 연호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태조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개경 이남에 광종은 거란과 여진의 도발적인 위협이 상존하는 시점에 북방보다 중부지방에 성을 수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최근에 연구된 성과에 의하면, 고려 광종 때 수리된 성곽과 사찰을 지도상에서 이어보면 평택, 안성(죽주), 충주로 이어지고 제천과 영월로 연장되는 현재의 38번 국도선과 일치하며 이는 후삼국 시대 고려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⁴²⁾

후삼국 시기에는 이선보다 남쪽에 있는 천안이나 청주 지역 역시 고려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지역은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이거나 반란의 역모가 의심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평택(비파산성) - 안성(안성 장릉리 사지) - 죽주(봉업사, 망이산성) - 송선사지 - 충주 - 제천(월광사) - 영월(홍녕사)을 잇는 지역은 후삼국시기에 온전한 고려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광종은 고려 왕실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방어선 정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인 구신과 호족 세력의 숙청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선의 구축은 광종의 왕권강화와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반란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매우 치밀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갔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⁴³⁾ 이러한 광종의 호족 견제 및 왕권강화 정책은 성종 1·2년(982·983)인 ‘太平興國七年·八年’銘 기와를 통해 보면, 성종 때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42) 정성권, 앞의 글, 2013, pp.223~266.

43) 정성권, 위의 글, 2013, pp.244~245.

나. 성종·목종·현종 대의 축성상황

10세기 말 요동지역에서 군사 긴장이 높아져 가자, 성종 9년(990년) 9월에 고려 전역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서도 유수관 및 주요 요충지의 주현과 여러 진의 장수들은 함부로 그 임소를 떠나지 말라.”고 명하였다. 또 같은 해 10월에 성종은 좌·우군영을 설치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991년에는 압록강 연안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고려는 거란과의 제1차 전쟁(성종 12년: 993) 이후 994년에서 996년까지 청천강에서 압록강 사이에 잔존하던 여진인들을 몰아내고 압록강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1차 전쟁 당시 서희의 담판 이후 興化·龍州·通州·鐵州·龜州·郭州 등의 강동 6주 일대에 축성을 하여 영유권을 확정지었다. 강동 6주는 고려와 거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이들 지역은 해안과도 근접거리에 위치하여 물자수송에도 유리하였다.⁴⁴⁾ 그러나 거란은 압록강을 건너는 요충인 의주 지역을 계속 장악함으로써 고려에 위협이 되었다. 그것은 언제든지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

이러한 거란과의 전쟁은 북방에 방어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하였다. 성종은 거란과의 군사적인 대치 속에서 北界의 州鎮城에 대한 군수지원을 위해서 6과체계가 운영되면서 고려 驛制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고, 아울러 전국을 대상으로 조세운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南道의 주요 浦口를 水運거점으로 하는 이른바 ‘60浦制’를 시행하였다. 6과체계는 향후 거란과의 전쟁을 대응하기 위한 국방 방어태세 구축이라는 긴박한 현실 속에서 마련된 驛制로 군사활동이나 북방 영토의 방어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일시

44) 『高麗史』 卷82 志36 兵, 屯田 文宗 18年 2月. “命有司以禮成江船一百七艘 一年六次 漕轉龍門倉米于麟 龍 鐵 宣 郭等州及威遠鎮 以充軍糧”.

적으로 개경 인근과 以北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된 역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종 11년부터 시행된 60浦制는 조운제의 출발점이지만, 조창제 운영시기처럼 조운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이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는 선박과 선운 인원을 소유한 재지세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⁴⁵⁾

이러한 성종 연간 후반기에 고려시대 연호명 기와가 南道 일대의 성곽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북방이민족과의 대치상황에서 개경 이북의 방비태세를 강화했던 상황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성종의 뒤를 이은 목종은 북계와 동계에 대한 축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목종 2년(1011)에는 동여진에 의한 최초의 해상 침입이 8월에 발생하였다. 그 후 동여진은 100여 척의 선박으로 慶州를 침입하였다.⁴⁶⁾ 이후 肅宗 2년(1097)까지 약 70여 년에 걸쳐 침입을 하였고 동계의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지역은 북으로부터 문천, 덕원, 안변, 통천,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삼척, 평해를 거쳐 남으로 흥해, 청하, 영일, 울주, 장기, 경주 등 동해안 일대였다. 동해안지대의 방어는 고려초 동여진을 막기 위해 兵船을 배치하였고, 해안지역에 축성을 시작하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성과 수·개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는 “문종이 임금이 되자 병부낭중 金瓊을 파견하여 동해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연해에 城堡와 農場을 만들어 해적 침공의 요충을 장악케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⁴⁷⁾ 이렇듯 동계 지역은 동여진 해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穆宗代부터 축성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45) 韓禎訓,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2009,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pp.44~66.

46) 『高麗史』 卷3 顯宗 21年 8月.

47) 『高麗史』 肅宗 元年 6月 甲戌. “鎮溟都部署 使文州防禦判官李順蹊等 與海賊戰敗之斬首十七級”.

있다.⁴⁸⁾ 이러한 고려전기 동해안 일대의 동여진족의 대비는 고려 말 조선초 왜구를 방어하는 海岸防禦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종은 顯宗 1년(1010)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거란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는 한편 30만의 군사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란의 성종은 그 해 12월에 4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興化鎮(靈州)을 포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군의 楊規와 李守和 등이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지만, 강조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워 패전하여 사로잡혔다. 이런 여세를 몰아 거란군이 淸水江(청천강)에 이르자 安北都護府 使工部侍郎 朴暹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 주민들이 모두 흩어졌고, 마침내 서경의 근접 거리인 肅州가 함락되었다. 그 결과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顯宗 2년(1011) 1월 거란군에 의해 개경이 초토화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현종은 현종 9년(1018) 집권체제의 안정을 위해 군현제의 개편에 이어 향리제 정비를 통해 중앙 행정력이 군·현의 행정단위까지 조직적으로 미치게 되었다.⁴⁹⁾ 그리고 현종 10년(1019) 거란과의 3차 전쟁을 승리하였고, 요나라의 제안으로 요에 대한 고려 국왕의 친조와 강동 6주를 반환하지 않는 대신 송의 연호 대신 요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부여 부소산성(大平八年)·진도 용장성(大平十年)·사천 선진리성(大平十五)·청주 청주읍성(大平)·부산 당감동성(大平)銘 기와의 연호도 이러한 이유로 요의 연호인 ‘大平’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종은 군현제 개편과 아울러 界首官制⁵⁰⁾와 주요 郡縣을 중심으

48) 김정현, 「高麗時代 嶺東地域의 海防遺蹟 研究」, 2011,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pp.7~14.

49)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4도호부,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을 배치하였다.

로 속현과의 연결을 우선시 하는 22역도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22역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운 교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당시 수운 교통시설은 내륙 하천변에 위치하여 하천을 도하하여 육상교통로를 이어주는 역할과 해안이나 하천 하구에 위치하여 수로나 해로를 따라 운선하는 유형이 있다.⁵¹⁾ 즉, 남도의 조세운송은 이렇게 육로와 수로가 결합된 수륙교통망을 이용하여 조창을 경유하거나 직납하여 京倉(개경)으로 운송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현종 말엽에는 지방제도의 안정과 22역로망과 수운체계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전 보다 집약성이 강화된 조창제가 성립하게 되었다.⁵²⁾ 아래의 도면을 보면 南道 일대의 조세 운반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부여 부소산성(大平八年)·진도 용장성(大平十年)·사천 선진리성(大平十五)·청주 청주읍성(大平)·부산 당감동성(大平)銘 기와가 출토된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기 앞서 고려 현종 당시 조세운반체계를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a-1. 國初南道水郡置十二倉. 忠州曰德興, 原州曰興元, 牙州曰河陽, 富城曰永豐, 保安曰安興, 臨陂曰鎮城, 羅州曰海陵, 靈光曰芙蓉, 靈岩曰長興, 昇州曰海龍, 泗州曰通陽, 合浦曰石頭, 又於西海道, 長湍縣置安瀾倉
- a-2. 倉置判官, 州郡租稅各以附近輸諸倉, 翌年二月漕運, 近地限四月, 遠地限五月畢輸京倉.
- a-3. 限內發舡, 因風失利梢工三人以上水手雜人五人以上, 并米穀漂沒者, 勿徵. 限外發舡 梢工水手三分之一敗沒者, 其官色典梢工水手等平均徵納.(『高麗史』 79卷, 食貨2, 漕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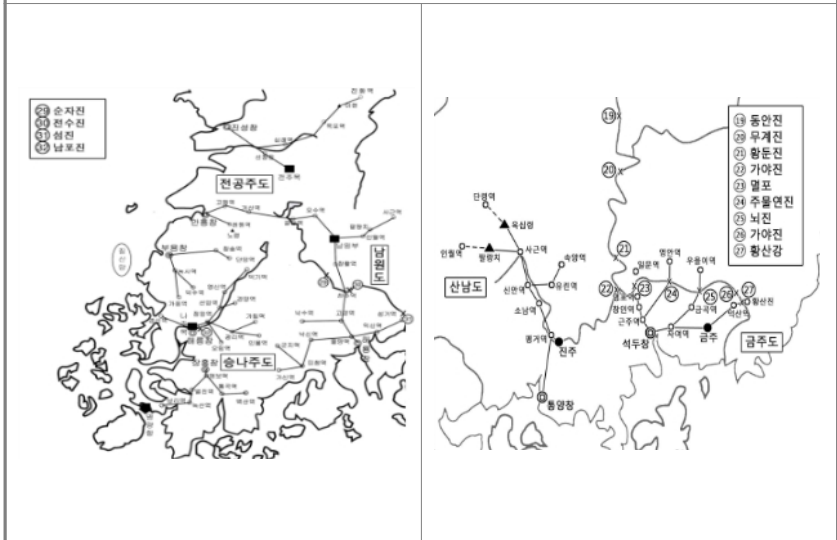
50) 윤경진, 「고려전기 界首官의 운영체계와 기능」, 『東方學志』 126, 2004, pp.31~62.

51) 韓禎訓, 앞의 글, 2009, p.69.

52) 고려시대 조세를 운송방식은 고려 건국 초 조세행정을 담당할 외관(轉運使)의 파견-거란과의 전쟁 중에 성종 11년 60浦制-현종 말엽에 내륙 역로망과 漕倉制-대몽항쟁기 이후에는 14세기 군현별 조운체제-고려 말기인 공양왕 때에는 漕轉城체제로 전개되었다.(韓禎訓, 앞의 글, 2009.)



① 충청도 일대 및 서해안



② 전라도 및 연해 지역

③ 경상도 및 연해 지역

도면 2. 조창 주변의 주요 운송경로와 도시시설53)

53) 韓禎訓, 앞의 글, 2009, ① p.138의 그림 2, ② p.146의 그림 4, ③ p.148의 그림 5 전제.

고려 현종 대에는 12조창이 운영되었고(a-1), 각 조창에는 판관을 두었다. 그리고 여러 고을들의 각각 부근에 있는 여러 창고에 운반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배로 나르고, 가까운 곳에서는 4월까지 먼 곳에서는 5월까지 경창으로 운송을 완료하도록 하였다.(a-2) 이러한 운송 기한을 정한 것은 조세 운반의 안전한 향해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음력 5월이 지난 6월에 이르면 장마와 태풍 등의 악천후로 조세 운반선이 침몰과 더불어 漕運穀의 보관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곡식의 손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운반 기한을 지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a-3)

위의 기록들을 보면 각 군현의 조세는 2월까지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순차적으로 개경으로 발송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각 군현에 위치한 조세 창고 혹은 이를 보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문헌에 기록된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성곽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창고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⁵⁴⁾ 예를 들자면, 부여 부소산성, 연기 운주산성, 아산 학성산성, 홍성 석성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하남 이성산성, 영월 정양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성에서 출토된 창고건물은 전쟁 등의 위급시를 대비해 군수 창고로도 사용되지만, 조세를 거둬 보관했던 창고의 기능에 대한 개연성은 있다. 이들 성곽은 고려시대 행정치소와 인접할 뿐만 아니라 驛路網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강원도 삼척지역 역에 대한 축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驛城은 邑城이나 鎭城의 기능을 보조하며, 조세를 거둬 보관할 곳, 주민보호라는 측면과 다른 지방군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⁵⁵⁾ 따라서 고려 현종 때 내륙에서 출토

54)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石壁建物の 성격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 42, 2010.

55) 유재춘,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 - 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3, 1998.

된 연호명 기와와 창고건물지가 확인된 성곽들은 지방행정단위 별로 조세미를 수취하여 군수미로 보관했던 기능과 지역에 따라 역로망을 감독하는 관리 혹은 창고를 지키기 위한 군사집단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다음은 해안가에 위치한 조창에서도 倉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사천 선진리성이 위치한 사천 일대에는 고려 초기에 통양창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⁵⁷⁾ 통양창에 대한 조선시대 기록인 『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에서는 通陽倉城은 縣에서 남쪽으로 17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며, 토축성으로 둘레는 기록상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86척이라고 기록되었다.⁵⁸⁾ 이러한 고려시대 조창성은 육로상에서의 역로를 관리하는 성곽의 기능과 더불어 漕運船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정박과 관련한 기능 및 목종대 이후 동여진 해적 및 왜구에 대한 대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천 선진리성에서 출토된 ‘大平十五’銘 기와는 사천 선진리성이 현종년간에 실시된 조세운반체제와 관련된 성곽임을 보여주는 자료라

56) 마산 회원현성에서는 ‘宜春縣’銘 기와가 출토되었다. 여기서 의춘은 의령의 별칭으로 고려 현종 9년(1018)에 의춘이라 하여 江陽郡(진주)의 속현으로 삼았다는 기사를 참고한다면 적어도 11세기 이전에는 회원현성지가 축조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명문기와들이 1차 수축 성벽과 2차 수축성벽에서 확인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회원현성지 1차 수축 성벽내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11세기 현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이 회원현성지의 수개축이 한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馬山 會原縣城』, 2008.)

57) 문경호는 고려시대 조창은 고려 현종, 정종 시기보다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문경호,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 조창」,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2011.) 그러나 김재명은 사천 통양창에 대한 문헌 기록을 검토한 결과 통양창성은 고려 공양왕 2년에 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김재명, 「高麗의 漕運制度和 泗川 通陽倉」, 『한국중세사연구』 20, 2006.) 그러나 고고학 결과에 의하면 선진리성은 통일신라에 축성되어 고려시기에 2차의 개축과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수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58) 통양창 이외에도 조선시대 기록에는 고려시대 조창성에 관련된 기록이 간략하게 남아 있다.

할 수 있다.⁵⁹⁾

그러나 진도 용장성의 ‘大平十年庚午四月..金沙寺..造印’銘 기와는 현종 대의 축성상황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용장성은 1270년(원종 11) 8월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오기 27년 전에 이미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삼별초군의 진도 입거와 함께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⁶⁰⁾ 따라서 진도 용장성의 연호명 기와는 이 당시 진도에 金沙寺라는 사찰이 존재했다는 사실 혹은 金沙寺의 기와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성종~현종 재임기간 동안 사용된 연호명 기와에 대해서는 성곽과 사찰 출토 유물에 대한 비교 및 성곽 축조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의종 대의 축성상황

마산 회원현성 출토 ‘正豐二年’ 기와는 高麗 毅宗 十一年 서기 1157년에 해당한다. 2008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正豐二年丁丑寺○一品八月造’銘의 명문 중 “一品”을 一品軍으로 해석하여 정풍 2년 정축년 8월에 회원현 성지에 대한 수축에 일품군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⁶¹⁾

그러나 마산 회원현성에서 출토된 ‘正豐二年’ 기와는 고려 의종 대에 마산 회원현성을 수축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59) 사천 선진리성이 통영창의 창성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조선 초기 고려시대 통영창이 폐기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되는 내용(『太宗實錄』 권5, 3년 5월 辛巳)에 따른 고려 및 조선시대 조창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고려시대 강과 해안이 만나는 지역의 퇴적상황 등으로 조운의 기능이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시간적 추이에 따른 고고학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60) 高龍圭, 『珍島 龍藏山城의 構造와 築造時期』, 『2010 국제학술대회 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 2011, 진도군·목포대학교박물관.

6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馬山 會原縣城』, 2008, p.247.

毅宗 대의 축성기사를 살펴보면 의종 3년과 4년에 북계에 위치한 가주와 연주에 대한 축성이 확인되고 있다.⁶²⁾ 그리고 의종 4년 정월에 대장군 오수기를 보내 보병 수천을 거느리고 동계를 방위하고, 겸하여 동계의 여러 부대를 거느리게 했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의종 재위 초기에는 북계와 동계의 방비태세를 정비할 뿐 다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의종 11년(1157)의 기사 내용에는 5월에 명주도 감창 김유립에게 울릉도를 조사하게 하거나, 8월에 양이정을 청자기와의로 엮었다는 기사가 주목되지만, 축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正豐二年’銘 기와는 발굴조사지역 전역에서 출토되었고, 전체 기와 수량의 12%을 가량 차지한다고 한다. 이 기와들은 성벽이 축조 후 2차례의 개축된 상황에서 2차 개축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³⁾ 필자는 2차 개축시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산 회원현 성지처럼 고려시대 조운과 관련되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 개축되었을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 혹은 외세의 침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요인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고종 13년(1226)에 왜인들이 경상도 연해 지대 州郡을 침략한 사실과 고종 14년(1227) 金州를 공격한 왜인들을 방호별감 盧르이 격퇴하고, 熊神縣을 침략한 왜인들을 별장 정금역 등이 공격하여 격퇴시킨 기록 들을 통해 보면, 이 시기에 마산 회원현 성지가 개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고려 원종 12년(1271)부터 14년(1273) 간의 삼별초

62) 『高麗史』82卷 兵 城堡. “毅宗三年復城嘉州門五水口一城頭二十六. 四年城延州門十水口五城頭十九遮城八.”

63) 필자가 보고서를 통해 ‘正豐二年’銘 기와가 성벽의 개축 시기를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성벽 2차 개축 시기에 출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필자의 판단이 조사단의 견해와 다를 시에는 향후에 수정토록 하겠다.

공격에 대한 대비, 원종 15년(1275)부터 몽골의 일본 원정 전진기지로서 마산이 그 역할을 할 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산 회원현 성지에서 출토된 ‘正豐二年’銘 기와는 2차 개축 당시 인근의 대규모 사찰 혹은 관청 등에서 운반하여 성 내부 시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⁶⁴⁾

라. 공민왕 대의 축성상황

‘至正十八年’銘 기와가 수습된 인제 한계산성⁶⁵⁾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으며, 설악산의 내설악에 위치하고 있다. 원통에서 한계산성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입구에 있는 옥녀탕에서 동쪽 능선을 따라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한계산성은 가장 낮은 곳이 해발 700m, 가장 높은 지역이 1,200m이다. 산성의 한가운데에는 계곡부가 위치하며 성벽은 그 둘레를 감싸고 있다. 산성의 동쪽과 서쪽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며, 북쪽의 뒤로는 해발 1,430m의 안산에서 뻗어내는 험산준령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한계산성은 상성(내성)과 하성(외성)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산골짜기와 양쪽 산의 좁은 능선을 가로막아 그 안의 계곡을 거점으로 하고 산의 가파른 능선을 이용하여 성을 지키고 적의 침입에 대비한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산성의 규모는 전체 둘레가

64) 성을 새로이 축조할 때 내부 시설물에 사용될 재목과 기와를 다른 곳에서 옮겨왔던 내용은 예종 3년(1108)에 함주와 공험진, 통태진에 南道民戶를 사민하기 위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윤관 등이 모든 군부대에 명령하여 內城의 재목과 기와를 거두어서 9성을 쌓고 남쪽지방 백성들을 옮겨다가 변경을 굳건히 하자고 할 때, 김한충이 이를 반대했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 卷95 金漢忠 列傳.)

65) 강원대학교박물관, 『寒溪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86.

『인제 한계산성 학술조사 보고서』, 2012.

강원대학교박물관·한국성곽학회, 『인제 한계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 2012.5, 인제 문화유산 가꾸기 학술심포지엄.

6.6km이고, 상성 1.9km, 하성 4.7km이나 전체적으로 자연능선을 그대로 성벽으로 이용하였고, 석축성벽은 상성과 하성 남쪽 성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내부 시설물은 상성에 동문지, 서문지가 있으며, 하성에는 남문지가 있다.

한계산성은 고려사 趙暉 열전에 고종 46년(1259)에 “조휘 일당은 자칭 官人이라 하면서 몽골병을 이끌고 와서 寒溪城을 공격하였으나 防護別監 安洪敏이 夜別抄를 거느리고 나아가 습격하여 모두 섬멸하였다”라는 기사⁶⁶⁾가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13세기에 축성되어 방호별감이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계산성은 대몽항쟁기의 험산대성 형태로 평상시에 치소의 기능보다는 피난성에 가깝다. 이러한 산성에 ‘至正十八年’銘 기와가 수습된 것은 대몽항쟁기 이후, 합단적의 침공, 쌍성총관부가 해체된 이후에 발생한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한계산성에 대한 활용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민왕 원년(1352) 6월 병인일에 왜구가 처음으로 江陵道를 침입하여 관내 여러 지역을 노략질하기 시작했다. 왜구는 처음에 남해안 일대에서 14세기 중엽 충정왕대(1349~1351)에 이르러 서해안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공민왕 대(1352~1374)에 이르러서 삼남 일대는 물론 강원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침탈행위를 자행하였고 해안지방은 물론이고 내륙지방까지 왜구가 출몰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각 도에 都巡問使를 배치하여 해안요지에 주둔한 병력을 지휘 통솔케 하여 왜구의 침입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1372년에는 왜구의 침입 범위가 내륙으로 확대되고, 병력 또한 증대되기에 고려 조정에서는 전라도의 조운을 폐지하고 전라도의 조세 징수체계를 육운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恭愍王 21년(1372) 4월부터는 동해안 일대에 왜구가 집중적으로 출몰하기

66) 『高麗史』 卷130 列傳43 叛逆4 趙暉.

시작하게 되었다.

同王 21년(1372) 4월 임진일에 동해안의 鎭溟倉, 6월 辛巳日에는 江陵府와 盈德縣 그리고 德原縣에 왜구가 침범했다. 왜구는 강릉부와 영덕·덕원을 약탈한 후 북상을 계속하여 6월 을유에는 安邊과 咸州를 침범하였다. 6월 辛丑에 왜구가 東界의 안변 등지를 침범하여 부녀자를 잡아가고 창고의 미곡 1만여 석을 약탈해 갔다. 고려정부의 왜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자, 왜구는 同王 23년(1374) 5월 을유일에 강릉을, 기축일에는 울주를, 이어 계사일에는 삼척을 침범하였다.

우왕 7년(1381) 2월 다시 왜구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寧海府를 불지르고 3월에는 강릉도에 침입하여 동해안 연해의 송생·울진·삼척·평해·영해·영덕 등지를 휩쓸고 삼척현을 불질렀다. 우왕 8년(1382) 3월에 왜구는 또 삼척·울진·羽溪(강릉) 등 동해안 일대를 침입해 왔다. 1383년 6월부터 단양·제천·주천·평창·횡천·영주·순흥 등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주변의 마을을 침입하였다. 8월에도 왜구 1,300여 명이 춘양·영월·정선 등지에 침입해 왔다. 이렇게 지속된 왜구의 침입은 9월에도 계속되어 강릉부와 금화현이 왜구들의 침입을 받았고 이어 회양부와 평강현이 이들에게 함락되었다. 이해 10월에 이르러 왜구는 狼川(화천)·양구·춘주(춘천)·가평 등지에 침입하였다. 1383년에 왜구들은 소규모 병력을 동원한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내륙지역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였으나 고려군의 적극적인 토벌작전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한계산성이 피난성으로 평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성곽임을 고려한다면⁶⁷⁾, ‘至正十八年’銘 기와가 수습된 것은 공민왕 7년(1358)

67) 인제 한계산성은 대몽항쟁기에 축조된 입보용 성곽으로 險山大城에 포함된다. 대몽항쟁기의 입보용 성곽의 특징은 고로봉(외성)+사모봉형(내성)의 입지조건에 해발고가 60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며 성벽의 둘레가 대체로 5~7km 정도였다.(김호준, 위의 글, 2012.)

이후의 시점에 강원도 일대에 침입한 왜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기록상으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왜구가 강원도 지역에 대한 침입이 드물었던 공민왕 24년(1375)부터 우왕 7년(1381)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기와는 인근의 寒溪寺 등의 사찰 혹은 관청 등에서 운반하여 성 내부 시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⁶⁸⁾

〈표 2〉 남한 지역 내 고려성곽 출토 명문 기와⁶⁹⁾

지역	성곽명	규모 (m)	재료	사용시기	명문
경기 도	양주 대모산성	1,400	석축	삼국~조선	‘德部舍’, ‘富部’ ‘國’, ‘官’, ‘官草’,
	서울 아차산성	1,125	석축	삼국~고려	‘官’, ‘北韓’, ‘韓山’
	화성 당성	1,200	토석	삼국~고려	‘大官’, ‘官’, ‘○定四年(1164)?’, ‘城新棟(棟), ‘○館宅’, ‘天’, ‘城’
	평택 비파산성	1,622	토축	통신~조선	‘乾德三年’, ‘車城’
	안성 주죽산성	중 1,322 외 602	석축	삼국~조선	‘官草’
	음성 망이산성	2,080	석축	통신~조선	‘○○/峻豊四年壬戌大介山/竹州’, ‘興國’, ‘○德進溫宮’, ‘○德九蒲凡草○○’, ‘○德宮宅障○○’, ‘京’, ‘○平○國七年·竹州凡草近○’, ‘官草’, ‘大官’, ‘官’
	이천 설봉산성	1,079	석축	삼국~조선	‘大官’, ‘官’, ‘田’, ‘天’, ‘大寺’
강원 도	춘천 봉의산성	1,284	석축	삼국~고려	‘西面’, ‘南面造’, ‘北面造’, ‘造官草此’, ‘造丁方’, ‘面官’
	춘천 삼악산성	내 1,329 외 3,300	석축	고려~조선	‘南面造’
	원주 영원산성	2,400	석축	고려~조선	‘大天’, ‘北?’
	양양 양양읍성	1,513	토석	고려~조선	‘丁未○○’, ‘○三年癸巳(?)’, ‘田’, ‘金’
	속초리 토성	유실	토축	고려	‘癸巳四月日右○造官…’
	강릉 명주산성	1,624	석축	통신~조선	‘溟州城’
	인제 한계산성	6,600	석축	고려~조선	‘寒溪○’, ‘至正十八年’(1358)

- 68) 인제 한계사에서서는 ‘至正十八年三月十三日’명 기와가 수습된 바 있다.(강원대학교 박물관, 『寒溪寺』, 1985.) 그리고 한계산성에서 수습된 ‘寒溪銘’ 기와 역시 한계사에서 운반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 69) 성곽의 현황은 성곽 사진(국립문화재연구소, 『韓國考古學專門事典-城郭·烽燧篇』, 2011.)을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출토 명문기와는 필자가 각 보고서를 확인한 바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남한 지역 내 고려성곽 출토 명문 기와 중에서 ‘官草’의 명문에 대한 해석문제는 출토된 건물지의 성격과 비교하여야 하므로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지역	성곽명	규모 (m)	재료	사용시기	명 문
충청남도	부여 부소산성	2,495	토석	삼국~조선	‘會昌七年丁卯年未印’, ‘阿尼城造’, ‘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 ‘官’, ‘官上徒作’, ‘○城○官’, ‘三十一年三月日沙尔寺造’
	공주 공산성	2,660	토석	삼국~조선	‘熊川’, ‘熊州’, ‘公州’, ‘官’, ‘大平’, ‘田’, ‘主’, ‘北’, ‘有西’, ‘右’, ‘崇禎十八年乙酉十二月’, ‘崇禎紀元後己門四月日重修’
	홍성 석성산성	1,600	석축	통신~고려	‘沙良官’, ‘沙尸良’, ‘沙羅瓦草’
	청양 우산성	1,081	석축	삼국~조선	‘官草?’
	예산 봉수산성 (대흘 입존성)	2,450	석축	삼국~고려	‘任存’, ‘存官’
	서천 남산성	632	석축	통신~조선	‘西林郡’, ‘舌林’
충청북도	청주 청주읍성	1,700	석축	통신~조선	‘大中三年’, ‘城’, ‘官’, ‘大平’
	청주 상당산성	4,200	석축	통신~조선	‘沙梁部屬長池駟○達’, ‘城’, ‘城草’
	청원 양성산성	1,030	석축	삼국~고려	‘堅相 ⁷⁰⁾ ’, ‘天下大一’, ‘官’, ‘善○’
	충주 충주읍성 내 1,586 외 6,000	토축	통신~조선	‘官’	
	충주 천룡산성	1,801	석축	고려~조선	‘天龍’, ‘大天龍寺’
전라	광주 무진고성	3,500	석축	통신~고려	‘大官’, ‘官’, ‘城’, ‘國’, ‘城·官’, ‘椽’, ‘眞官’, ‘向生丁大官草’
	전주 동고산성	1,574	석축	통신~고려	‘全州城’, ‘官’, ‘天聖貴’, ‘師’
	무안 봉대산성	430	석축	통신~고려	‘官’
	광양 마노산성	550	석축	삼국~고려	‘馬老官’, ‘官’, ‘甲全官’, ‘官年末’
	진도 용장산성	13,000	석축	고려	‘大匠’, ‘惠’, ‘三月’(大匠惠印癸卯三月), ‘官年末’, ‘大平十年庚午四月..金沙寺..造印’
	완도 청해진성	890	토축	통신~조선	‘官’, ‘舍草’, ‘東’, ‘本’
	나주 회진성	2,400	토축	통신~고려	‘會津縣大成子蓋雨○’, ‘○團三年己卯’, ‘皿○洪○’, ‘官○’, ‘大’, ‘潘南’
	나주 신촌리토성	유실	토축	통신~고려	‘○團三年己卯’, ‘皿○洪○’, ‘官○’, ‘大’, ‘潘南’
경상	순천 해룡산성	2,085	토축	신라~고려	‘左官草’, ‘右官’, ‘官造’, ‘住’
	포항 남미질부성	2,000	토축	삼국~고려	‘官’, ‘申’
	순흥 비봉산성	1,350	석축	삼국~고려	‘官’
	부산 당감동성	264步	토축	고려~조선	‘大平’, ‘南面東萊郡’, ‘三品’
	동래 고읍성지	4,430척	토축	통신~고려	‘官’, ‘大’, ‘東來’, ‘東面’, ‘南面’, ‘北面’
	거제 폐왕성	526	석축	삼국~고려	‘大’, ‘○福寺’, ‘○草’, ‘○旺干’
	마산 회현성지	620	토축	통신~고려	‘正豐二年丁丑 寺○一品八月造’, ‘南面’, ‘東面’, ‘宜春○’, ‘于良’, ‘○山’
	사천 선진리성	920	토축	통신~조선	‘大平十五○連’, ‘官草’, ‘太’, ‘音尙○’
	봉화 청량산성	6,500	석축	통신~조선	‘城’, ‘官’
	제주도	제주 향파두리성	3,800	토축	고려
제주 제주읍성		2,600	석축	고려~조선	‘壬申’, ‘守城造瓦’, ‘丙寅春’

70) 「海印寺妙吉祥塔記」에서 “...匠土 僧蘭交 僧清裕 副 居弗 堅相 具祖...” 이름이 확인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남한 지역 내 고려성곽 출토 년호명 기와에 대해서 살펴해보았다.

고려시대 年號銘 기와는 평기와의 제작방식 등을 비교하여 편년 설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성곽에서 출토된 銘文 기와는 성곽의 활용문제를 밝혀줄 중요한 금석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성곽 명문 기와의 명문은 현 남북한의 상황에서 고려시대 성곽의 축조 및 활용문제를 전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고려성곽에서 출토된 연호명 기와는 ‘峻豐四年’(광종 14년: 963), ‘乾德三年’(광종 16년: 965), ‘太平興國七年·八年’(성종 1·2년: 982·983), ‘大平八年’(현종 19년: 1028)·‘大平十年’(현종 21년: 1030)·‘大平十五’(정종 1년: 1035), ‘正豐二年’(의종 11년: 1157), ‘至正十八年’(공민왕 7년: 1358)으로 6개의 연호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출토된 성곽은 음성 망이산성(峻豐四年, 太平興國七年·八年), 평택 비파산성(乾德三年), 부여 부소산성(大平八年), 진도 용장성(大平十年), 사천 선진리성(大平十五), 청주 청주읍성(大平), 부산 당감동성(大平), 마산 회원현성(正豐二年), 인제 한계산성(至正十八年) 등 9개 성곽이다.

‘峻豐四年’(광종 14년: 963), ‘乾德三年’(광종 16년: 965), ‘太平興國七年·八年’(성종 1·2년: 982·983)명 기와를 통해, 고려 광종의 호족 견제 및 왕권강화 정책이 성종 때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大平八年’(현종 19년: 1028)·‘大平十五’(정종 1년: 1035)銘 기와를 통해 고려 현종 때 내륙에서 출토된 연호명 기와와 창고건물지가 확인된 성곽들은 조세를 거둬들여 보관하는 기능과 역로망을 감독하는 관리 혹은 창고를 지키기 위한 군사집단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볼 가능성과 남해 연안에 축성된 성곽은 漕運과 관련된 倉城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창성은 육로상에서의 역로를 관리하는 성곽의 기능과 더불어 漕運船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정박과 관련한 기능과 목종 대 이후 동여진해적 및 왜구에 대한 대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진도 용장성의 ‘大平十年庚午四月..金沙寺..造印’銘 기와는 현종 대의 축성상황을 보여주기보다는 당시 진도에 金沙寺라는 사찰이 존재했다는 사실 혹은 金沙寺의 기와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正豐二年’銘 기와를 통해 기존에 마산 회원현성이 高麗 毅宗 十一年(1157)에 일품군을 동원하여 수축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고려 원종 12년(1271)부터 14년(1273) 간의 삼별초 공격에 대한 대비와 원종 15년(1275)부터 몽골의 일본 원정 전진기지로 활용되면서 인근의 사찰 혹은 관청 등에서 운반하여 성 내부 시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至正十八年’銘 기와를 통해 인제 한계산성이 공민왕 7년(1358) 이후의 시점에 강원도 일대에 침입한 왜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려 정부가 대몽항쟁기 입보용 성곽을 활용함으로써 왜구의 강원도 지역에 대한 침입을 공민왕 24년(1375)부터 우왕 7년(1381) 사이에 저지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와는 한계산성 인근 寒溪寺 등의 사찰 혹은 관청 등에서 운반하여 성 내부 시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고려성곽 내 연호명 기와를 통해, 고려시대의 축성 및 경영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쉬움 점이 있다. 이러한 논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곽과 주변 건물지 유적의 연호명 기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인근 사찰과

성곽과의 관련 된 당시 지방의 정세와 문화, 교통망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으로 조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호명 기와가 고고학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검토와 명문기와의 판독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고려시대 명문기와에 대한 연구는 역사고고학 범주에 들기 때문에 고고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명문의 판독과 해석에 대해서 고려시대 문헌사와 불교 미술사, 금석문 전공자 등과 동반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고려시대 성곽 및 사찰 등에서 출토된 연호명 기와를 통해 고려시대의 빈약한 문헌자료 밝혀줄 중요한 금석문 자료와 고고학 자료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5.7.7,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高麗, 城郭, 銘文 기와, 年號, 광종, 築城, 호족, 漕運, 삼별초, 몽골, 왜구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oryeo Dynasty Castle's Fortification located in South Korea and the roof tiles with Reign name

Kim Ho-jun

The roof tiles with inscriptions are very important archeological materials which can reveal the historical facts for the matter of using the fortified castle.

This dissertation researched about roof tiles with inscriptions which were excavated from the Castle during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located in South Korea. Chinese characters are incised on the roof tiles such as Reign name.

In the castle of Goryeo Dynasty, there have been found six kinds of roof tiles with inscription of the sexagenary cycle. These are Junpungsanyeon(峻豐四年, 963), Geondeoksamnyeon(乾德三年, 965), Taepyeong heunggukchillyeon·pallyeon(太平興國七年·八年, 982·983), Daepyeongpallyeon(大平八年, 1028), Daepyeongsibyeon(大平十年, 1030), Daepyeongsibyeon(大平十五年, 1035), Jeongpunginyeon(正豐二年, 1157) and Jijeongsippallyeon(至正十八年, 1358).

Until now nine castles containing the roof tiles with inscription of the sexagenary cycle - have been were excavated are nine. Those are Eumseong Mangisanseong(峻豐四年, 太平興國七年·八年), Pyeongtaeng Bipasanseong(乾德三年), Buyeo Busosanseong(大平八年), Jindo Youngzhangseong(大平十年), Sacheon Seonjilliseong(大平十五年), Cheongju Cheongjue upseong(大平), Busan Danggamdongseong(大平), Masan Hoewonhyeonseong(正豐二年), Inje Hangyesanseong(至正十八年).

King Kwangjong tried to strengthen royal power. For intensifying the

royal authority, So Kwangjong liquidated many founding contributor. He also worried about the feasible rebellions by his opponents'. He wanted to quash the rebellion if the uprising break out. Because of that, he had built and repaired many fortress and temples at the central districts of Goryeo. This policy had continued to King Seongjong. This article could assume the historical facts above by roof tiles which were excavated from Mangisanseong and Bipsanseong.

The roof tiles with inscription of Daepyeongpallyeon(大平八年, 1028) and Daepyeongsiho(大平十五年, 1035) can be a evidence of the historical facts that King Hyeonjong built storehouses in the castle. These storehouses are closely related with traffic routes, taxes and military camp.

In this article, it proved that Mongolian army rebuilt a castle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vasion of Japan. The roof tiles with inscription of Jeongpunginyeon(正豐二年, 1157) can be a evidence of author's view, and Jijeongsippallyeon(至正十八年, 1358) can be a proof that Japanese pirate raiders invaded to the inland and the government needed to refuge the civilians to the Inje Hangyesanseong in the period of King Gongmin and King Yu.

Key Words : Goryeo Dynasty, Castle, roof tiles with inscriptions, Reign name, King Kwangjong, Fortification, Powerful Families, The Marine Transportation for Taxation, Sambyolcho(三別抄), Mongolian, Japanese pirate raiders.

